

올림포스의 12 신

제우스 형제는 티탄들과의 세계 지배권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도 기간토마키아와 튀폰과의 싸움을 통해 세계 지배의 위험 요소들을 제거했다. 그 후 안정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제우스 형제는 역할을 분담한다.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운명’에 순응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제우스의 세 누이,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의 역할과 권능은 운명이 정하는 대로 결정되었다. 삼 형제는 제비뽑기로 지배 영역을 나누어 제우스는 하늘, 포세이돈은 바다, 하데스는 지하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다. 지상과 올림포스 산은 공동 소유로 했지만 하늘을 맡은 제우스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올림포스의 12신은 제우스와 위의 세 여신들, 그리고 아프로디테, 제우스의 자식들인 아테나, 아르테미스, 아폴론, 헤파이스토스, 아레스, 헤르메스, 디오니소스를 말한다. 포세이돈은 바다, 하데스는 지하 세계에 거주하므로 올림포스 신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다. 올림포스의 다른 신들의 권능과 역할도 운명이 결정해 주었다. 즉 아프로디테는 미와 사랑, 아테나는 공예와 지혜와 전쟁, 아르테미스는 숲을 관장하고, 아폴론은 예언, 질병의 전파와 치유, 음악, 헤르메스는 상업과 전령, 헤파이스토스는 대장장이, 아레스는 무술과 전쟁, 디오니소스는 포도주를 맡았다.

1. 제우스(Zeus)

1)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

제우스가 신과 인간을 창조한 것은 아니지만 신들 세계와 인간 세계의 질서를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이다. 그는 군주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력을 보호하며 법을 수호하고 죄인을 벌한다.

제우스는 정치적 기민함에서 어느 신보다 앞선다. 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또 다룰 줄 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버리는 현실 감각이 있다.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알아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그의 능력은 다른 신들을 압도한다. 그가 인간뿐 아니라 신들의 지배자인 것은 이런 탁월한 정치 감각과 술책을 가진 덕분이다. 지하 세계의 신 하데스가 제우스와 데메테르 사이에 태어난 딸 페르세포네를 납치했을 때, 이를 방관한 것은 세계를 다스리는 데에 하데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패권을 위해서 딸의 행복을 희생시킬 정도로 정략가이다.

메티스 여신이 그의 왕위를 빼앗을 아들을 낳을 운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우스는 그녀를 작게 만들어 통째로 삼켜 버렸다. 또한 결혼하기를 원했던 테티스(바다의 여신)가 아버지보다 위대한 아들을 낳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테티스가 혹시 다른 신과의 사이에 아들을 낳아 자신의 경쟁자가 될까 두려워 그녀를 아예 인간과 결혼시켰다. 권력 앞에서 그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이다.

2) 하늘의 신

제우스는 ‘하늘’, ‘낮’, ‘빛’을 의미하며 우라노스와 달리 온갖 기상학적 현상(비, 천둥, 벼락 등)이 일어나는 하늘의 신이다. 농경과 해상무역을 주업으로 했던 그리스인들에게 날씨

의 변화는 생사를 결정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기후를 관장하는 제우스가 최고신으로 숭배되었던 것은 자연스럽다. 예측할 수 없고 무지막지한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티탄과 기간테스, 튀폰을 정복한 제우스는 때에 맞춰 비를 내리고 계절을 바꾸고 구름을 모으거나 순풍을 보내는 조화로운 자연을 관장하고, 벼락과 천둥과 번개가 무기이다.

3) 기후를 주관하는 신

제우스는 대기를 비롯한 모든 하늘의 일을 다스린다. 바람과 구름, 비, 서리, 눈, 우박 등 모든 기후 변화를 주관하는 신이다. 그의 제단은 흔히 구름이 모이는 산 정상에 세워졌고, 가뭄이 들면 이 제단에서 희생제가 치러졌다. 그는 좋은 날씨로 풍요를 선물하는 신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불경을 저지르면 홍수를 내리거나 가뭄이 들게 해 벌을 내린다. 한 해 농사는 전적으로 그의 손에 달려 있다. 그가 좋은 날씨를 주면 풍년이 들고, 심술을 부리면 흉년이 든다. 그러므로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4) 질서의 감시자

제우스는 타락한 인류를 멸하기 위해 네 번이나 홍수를 일으켰다고 한다. 이 홍수에서 데우칼리온과 뿔라만이 살아남았다. 또한 전쟁과 살육, 음모와 모함으로 세월을 보내는 영웅시대의 인간들이 보기 싫어 두 번의 큰 전쟁을 일으켰는데, 첫 번째가 오이디푸스 아들이 왕위 쟁탈전을 치른 테바이 전쟁이고, 두 번째는 트로이 전쟁이다.

우주의 지배자로서 제우스는 올림포스 산정에서 세상을 굽어보며 모든 것을 다스렸다. 제우스는 욕심을 부려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신이건, 영웅이건 질서를 어지럽히면 그의 벌을 피할 수 없었다. 태양신 헬리오스의 아들 파에톤이 아버지의 충고를 듣지 않고 태양을 실은 마차를 몰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파에톤의 미숙한 솜씨에 마차는 궤도를 벗어나 너무 낮게 나는가 하면 때로는 너무 높게 날아갔다. 그래서 강물이 마르기도 하고 강추위가 몰아치기도 했다. 파에톤을 내버려두면 자연의 질서가 파괴될 수도 있어 산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제우스는 번개를 내리쳐 그를 죽였다.

소아시아 리디아 지방의 왕 탄탈로스는 신들의 사랑을 받아 올림포스에서 식사를 하곤 했다. 탄탈로스는 어느 날, 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신들을 시험하기 위해 아들을 죽여 그 고기를 식탁에 올렸다. 제우스는 그의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하여 그를 지하세계에서 영원히 갈증과 기아의 고통으로 시달리게 했다.

분수를 모르는 오만한 자들을 혐오하고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을 벌하는 제우스는 정의를 존중하는 윤리적 신이다. 모든 신들과 인간들을 지배하기에는 물리적 힘의 우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윤리적으로도 다른 신들보다 더 훌륭해야 한다.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는 그가 윤리적으로 부도덕하다면 사회정의를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림포스 신들은 윤리적 존재가 아니었고, 제우스 역시 절대선을 추구하는 윤리신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5) 도시국가와 가부장제의 수호자

제우스는 도시국가를 수호하는 동시에 가정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가정을 지켜주는 가부장제도의 수호신이기도 하다. 가정을 파괴하는 자는 그의 화를 피할 수 없다. 그 자신이 헤라와 합법적인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절대적 권위를 자랑하는 가부장제의 가장들이 흔히 그러하듯 그는 결코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아니었다. 염문과 추문으로 헤라의 속을 썩이고 질투를 불러일으켰다.

6) 제우스와 여성들

제우스는 여신들과 요정, 심지어 인간 여자들과의 사이에서 많은 자식을 낳았다. 그는 ‘지혜와 조심성의 여신’ 메티스(Metis)와 첫 번째 결혼을 했다. 메티스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우스는 불길한 예언을 들었다. 이번에는 딸을 낳지만, 다음에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것이라고 했다. 제우스는 메티스를 작게 만들어 삼켜버림으로써 운명을 벗어남과 동시에 메티스의 지혜와 조심성을 자기 것으로 했다.

다음에는, ‘법과 질서와 이치’의 여신 테미스(Themis)와 결혼했다. 그 사이에서 계절의 여신 호라이 세 자매와 운명의 여신 모이라이 세 자매가 태어났다. 제우스와 테미스의 결합은 제우스가 어떻게 세계의 영원한 질서를 유지하는지 보여주며, 동시에 그가 존중하는 ‘운명’이 실제로는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의 힘을 조금도 제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억’의 여신 므네모쉬네(Mnemosyne)와 동침하여 음악과 시를 관장하는 여신 아홉 자매를 낳았다. 이 자매들이 ‘기억’이라는 정신을 통해 신들의 나라와 인간 세상의 음악과 시를 담당하는 여신들인 무사이(Mousai)이다.

제우스는 헤라에게 연정을 품고 사랑을 고백했으나 헤라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작은 뱀꾸기로 변신해 가련한 모습으로 헤라의 품에 안겼다. 작은 새를 붙잡히 여긴 헤라가 안았을 때, 제우스는 원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헤라는 정식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전까지 완강하게 버텼고 제우스는 결혼을 승낙했다. 헤라와 결혼한 것은 제우스에게 결정적이었다. 그렇다고 그의 바람기가 잠잠해지지는 않았다. 티탄의 딸 레토(Leto)와의 사이에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았고, 아틀라스의 딸 마이아로부터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낳았다.

그는 인간 여자에게 접근할 때는 동물로 변신하기도 한다. 에우로페를 유혹하기 위해 황소로 변신했고,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백조로 변신했으며, 이오를 유혹할 때는 헤라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켰다. 그가 동물로 변신하거나 상대방을 동물로 변신시킨 것은 고대 사회에서 동물숭배와 관련이 있다.

또한, 테바이의 알크메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쟁터로 나간 남편 암피트뤼온으로 변신해 동침했다. 그로부터 헤라클레스가 태어났다. 감옥에 갇힌 다나에에게 접근할 때는 황금 빗물로 변신했다. 천장 틈으로 감방에 들어가 다나에와 사랑을 나누었고 영웅 페르세우스가 태어났다.

제우스의 사랑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상처는 여신 테티스에게서 받았다. 제우스는 테티스를 좋아했지만 그녀가 자신보다 강한 아들을 낳을 운명이기 때문에 포기했을 뿐 아니라 테티스가 다른 신과도 결혼하지 못하도록 인간 펠레우스와 결혼시켰다. 이 결혼에서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우스가 탄생한다. 또한 요정 아스테리아가 제우스를 거절하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떨어져 죽었다. 그녀는 죽어서 델로스 섬이 되었다. 제우스는 자신의 사랑을 거절한 벌로 델로스 섬을 아무도 찾지 않는 불모의 떠돌이 섬으로 만들었다.

제우스가 바람둥이인 것은 그의 뜻만은 아니다. 그의 애정 행각에서 제우스 신앙이 확산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즉, 각 지역과 왕족들이, 혈통을 중시하는 그리스인들의 관습에 따

라 자신들의 혈통을 제우스와 관련시키려고 했던 결과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아울러 그것은 왕의 통치권 합리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왕이 세계의 지배자인 제우스의 자손이라고 함으로써 왕권을 정당화한 것이다. 또한, 기후가 지배하는 고대 농경 사회의 다산과 풍년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데 신의 왕성한 성적 결합이 다산과 풍년을 약속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제우스의 애정 행각이라는 씨뿌리기를 통해 다산을 실현하면서 풍년을 기약했고 여러 지역의 왕권과 명망 있는 가문의 조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하지만 제우스는 바람기로 인해 후세에 부도덕하다고 비난받았다. 전설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을 테지만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제우스 신앙은 완벽한 윤리를 갖춘 기독교에 밀리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제우스가 피하려고 했던 운명은 자식이 아니라 그의 바람기에서 말미암았다. 한때 제우스 신앙이 다른 신앙을 흡수하며 생겨났던 연애 설화가 결국 그의 몰락의 원인이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도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고대 그리스 인들은 제우스가 주관하는 운명이 때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로 받아들였다. 체념하여 주저앉지 않고 도망가려고 발버둥치지도 않았다. 현실을 가혹하고 변덕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분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 문명을 일으켜 세운 그리스인들의 미덕일 것이다.

7) 제우스 숭배와 신전

제우스는 그리스 전역에서 숭배되었기 때문에 그의 신전은 많았다. 헬레니즘 문화가 지중해를 따라 확산되면서 제우스 숭배는 더욱 확산되었고, 때로는 해당 지역의 토착 신과 동화되기도 했다. 제우스 숭배는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인들을 단결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2. 헤스티아(Hestia)

크로노스와 레아의 딸 헤스티아는 화로의 여신으로 늘 올림포스에 조용히 머물러 있다. 그래서인지 그녀에 관해서는 특별한 에피소드가 없다. 그러나 그녀의 위치는 확고하여 제우스에게 순결을 지킬 권리와 인간이 올리는 제물의 첫 몫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다. 헤스티아는 온화하고 인자한 신으로 누구든 그녀의 신전으로 피신하면 보호받았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집안의 중심이 화로였기에 그녀는 가정생활을 수호하는 여신으로 숭배 받았다. 그러나 로마시대에 베스타(헤스티아의 라틴명) 여신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신으로 간주되었다. 전쟁과 같은 큰 일이 생기면 로마인들은 이 여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베스타 여신의 성화를 지키는 여섯 명의 여사제가 있었다.

집 안의 불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며 아울러 도시의 불의 수호신이기도 한 헤스티아의 불은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의 불과 다르다. 대장장이의 불은 생산과 기술에 쓰이지만 헤스티아의 불은 아궁이에서 평화롭게 타오르며 인간을 따뜻하게 하는 화목을 상징하는 화덕의 불이다. 헤스티아는 가정을 중시하는 고대 그리스인의 오랜 관습을 반영한 여신이다.

3. 데메테르(Demeter)

데메테르는 헤스티아, 헤라와 함께 올림포스 신들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숭배되던 신이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곡식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곡식 중에서도 밀의 경작과 수확이 그녀의 소관이다. 밀의 파종과 수확을 지켜보는 것이 그녀의 일이라면, 곡물 창고를 가득 채워놓는 ‘풍요’는 아들 플루토스의 몫이고, 밀이 파종되어 싹이 돋아나기 전 땅속에 묻혀 있는 동안은 딸 페르세포네(코레)가 주관한다.

데메테르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딸로 제우스의 누이이면서 그와의 사이에 딸, 코레를 낳았다. 어느 날, 코레가 하데스에게 납치되어 지하세계로 끌려갔다. 사라진 딸을 찾기 위해 데메테르는 올림포스를 떠나 지상을 떠돌기 시작했다. 그녀가 딸을 찾느라 자신의 직분인 농사를 전혀 돌보지 않아 대지의 곡식은 여물지 않았고 사람들은 곤란을 겪게 되었다. 인류가 농사를 시작한 이래 최악의 흉년이 들었다. 사람들은 굶고, 신전에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되자 제우스가 중재에 나서 모녀는 상봉할 수 있었다.

데메테르는 딸을 되찾으려 했고, 하데스는 영원히 자기 곁에 두려 했다. 제우스는 코레가 지하에서 아무 것도 먹지 않았다면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지만 그녀는 이미 하데스가 준 석류 몇 알을 먹은 뒤였다. 그래서 제우스는 그녀가 먹은 석류 알만큼 하데스와 있고 나머지는 데메테르와 함께 있도록 했다. 데메테르와 하데스가 이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코레는 ‘페르세포네’라고 불리게 되었다. 데메테르는 올림포스로 돌아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고, 페르세포네는 어머니와 지하 세계를 왕래하면서 살아야 했다. 페르세포네는 밀의 씨를 뿌리는 10월 초에 지상으로 올라와 지내다가 수확이 끝나는 6월 초에는 지하 세계로 내려갔다. 결국 페르세포네의 삶은 밀의 파종과 성장, 수확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데스는 죽은 자를 지하세계로 끌어들이는 신이고, 데메테르는 대지에서 생명을 키워내는 신이다. 그러나 죽어서 땅 속으로 들어가 새 생명을 싹트게 하는 과정에서 두 신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바로 페르세포네이다.

* 엘레우시스 비교(秘敎)

데메테르 여신이 노파의 모습으로 엘레우시스에 나타났다. 우연히 왕궁에 유모로 들어갔다가 신분이 밝혀져 왕궁을 떠나면서 왕비에게 자신을 공경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왕과 왕비가 여신이 시키는 대로 제사를 올리게 되면서 ‘엘레우시스 비교’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것은 밀이 싹트는 신비, 계절의 순환, 모든 생명의 원천인 곡물과 죽음의 관계를 설명해준다. 자연 속에 나타나는 교체와 순환 현상은 인간의 운명 그 자체이다. 엘레우시스 비교 의식에서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지하 세계에서 올라오는 페르세포네를 맞는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죽음 뒤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한다.

4. 헤라(Hera)

크로노스와 레아의 딸 헤라는 제우스의 세 번째 부인이 되어 전쟁의 신 아레스, 청춘의 여신 헤베, 해산의 여신 에일레이티아를 낳았다. 그런데 신화에서 헤라는 남편의 연인이거나 자식들을 끊임없이 질투하고 박해하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한다. 제우스의 계속되는 바람기에 참을 수 없어 포세이돈, 아폴론, 아테나의 도움을 받아 잠든 남편을 묶어버린 적도 있다. 그를 권좌에서 몰아내려던 이 시도는 그러나 실패로 끝났다. 이후 헤라는 복수의 방향을 남편의 여자들과 그 자식들에게로 돌렸다. 그녀의 복수가 가장 치열하고 가장 집요하게

행해진 제우스의 자식은 헤라클레스였다. 그녀는 헤라클레스가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갓난아기였을 때는 뱀을 요람에 집어넣어 죽이려고까지 했다. 또한 헤라클레스를 미치게 했고,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부여하며 끝까지 괴롭혔다.

1) 결혼생활 수호 여신

자신의 결혼 생활은 힘들었지만, 헤라는 결혼 생활과 가정을 수호하는 여신이다. 결혼 생활을 수호하는 여신으로서 헤라는 남편의 계속되는 바람기를 참기 힘들어 여인들에게 강한 질투심과 복수심을 퍼부었다. 레토가 제우스와 관계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으려고 했을 때 헤라의 분노가 두려워 레토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황폐하여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던 델로스 섬만이 레토를 받아들여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또한, 제우스의 사랑을 받은 이오는 헤라에게 쫓겨 소의 모습으로 변해 도망 다녔다. 헤라는 눈이 100개 달린 괴물 아르고스를 동원해 이오를 감시하게 했다.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보내 아르고스의 눈을 잠들게 한 뒤 죽여 버렸다. 헤라는 아르고스의 눈을 공작 꼬리에 붙여주었다. 아르고스가 죽자 헤라는 다시 이오에게 등예를 보내 몸을 물어뜯게 해 괴롭혔다. 박해를 당하던 이오가 이집트에 도착하자 제우스는 이오를 다시 사람으로 변신시켰다. 이집트에서 이오는 이집트의 왕이 되는 에파포스를 낳았다.

제우스와 관계해 디오니소스를 낳을 세멜레를 죽게 한 것도, 디오니소스를 한때 미치게 한 것도 헤라였다. 결혼 생활의 수호신으로서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메넬라오스의 부인 헬레네를 유혹해 트로이로 데려가자 트로이를 공격하는 그리스 군을 편들어 파리스뿐만 아니라 트로이까지 응징했다.

2) 대지의 여신

헤라는 땅의 다산성을 주관하는 여신이다. 땅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녀는 여성의 분만을 도와 다산성을 높였다. 분만을 주관하는 에일레이티아가 딸인 것은 그 때문이다. 지모신으로서 헤라에 대한 숭배는 제우스 중심의 올림포스 신앙보다 훨씬 앞선다. 그런데 가부장적 성격의 올림포스 신앙이 그리스 땅에 들어오면서 헤라는 본래의 대지의 여신으로서의 성격을 점점 잃고 ‘질투의 화신’으로 변모하고 만다.

3) 공기와 별의 여신

헤라는 헤라클레스가 마침내 죽어 승천했을 때, 그를 품에 안고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의식을 거행한 다음, 젖을 먹였다. 그때 헤라의 가슴에서 흘러내린 젖이 하늘의 은하수가 되고, 땅으로 떨어진 젖은 백합이 되었다고 한다.

5. 아프로디테 (Aphrodite)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이다. 호메로스는 제우스와 디오네의 딸이라고 했지만,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크로노스가 낮으로 잘라 던진 우라노스의 생식기가 바다에 떨어져 그 정액이 바닷물에 섞여 거품이 되었고, 그로부터 아프로디테가 태어났다. ‘아프로디테’는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이라는 뜻이다.

아프로디테는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와 결혼했으나 전쟁의 신 아레스를 애인으로 두

었다. 태양신 헬리오스가 어느 날 두 연인의 모습을 보고 헤파이스토스에게 고자질하였고, 그러자 남편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망을 쳐두고 외출했다. 아프로디테는 그것도 모르고 애인을 불러들였다가 남편이 쳐둔 망에 함께 갇히고 만다. 헤파이스토스는 그 현장을 올림포스의 신들에게 공개해 망신을 주었을 정도였다. 아프로디테는 아레스와의 사이에 에로스(Eros 사랑)를 비롯해 데이모스(Deimos 불안), 하르모니아(Harmonia 조화), 포보스(Phobos 공포)를 낳았다.

1)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신들은 물론, 인간들이 빠져드는 사랑의 욕망을 주관한다.

2) 생식력의 여신

원래 그녀는 자연의 왕성한 생식력과 끈질긴 회생력을 상징하며 다산과 모든 생명체의 성장을 주관하던 토착신으로 시리아에서 그리스로 왔다. 그리스에 제우스 신앙이 들어오자 아프로디테는 생식과 번식의 요체가 되는 사랑을 주관하는 일만이 그녀의 직분으로 남게 되었다. 그녀와 아도니스의 사랑은 그녀가 생식력의 여신임을 잘 보여준다. 아도니스 이야기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이다.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의 이야기가 곡물의 파종과 수확을 담아낸 것이라면, 아도니스 이야기는 꽃을 비롯한 식물이 죽고 다시 피어나는 현상을 담아낸 것이다. 지하 세계에서 지내는 시기는 곡물뿐 아니라 꽃과 나무에도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지하 세계의 어둠은 곡물과 꽃이 순환하는 과정 중 일종의 휴면기이기 때문이다. 아도니스와의 사랑으로 엮이는 아프로디테의 위력은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봄이 되어 꽃이 피는 자연의 소생을 통해 자연의 생식력과 번식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로마 민족의 시원

아프로디테는 트로이의 청년 앙키세스와 사랑을 나누고 아이네이아스(Aeneias)를 낳았다. 아이는 훗날 트로이의 영웅이 되어 트로이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게 되며, 트로이가 패하자 병사들을 이끌고 지중해 연안을 떠돌다가 이탈리아의 라티움에 정착한다. 아이네이아스는 그곳 원주민의 딸과 결혼해 라비니움을 건설한다. 그의 손자인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그 곳에 로마를 세운다. 아이네이아스는 그러므로 로마인의 시조가 된다.

4) 여신의 분노와 질투

아프로디테는 인간까지 사랑하면서 이성과 사랑을 나누는 여신으로 약화되다가 쾌락의 여신으로 변모하게 된다. 아프로디테도 질투와 복수심에서 다른 여신들과 다름없다. 아레스와 사랑에 빠진 새벽의 여신 에오스를 벌주기 위해 에오스가 끊임없이 사랑하게 되는 저주를 내렸고, 렘노스 섬 여인들이 자신을 숭배하지 않자 분노해 이들에게서 고약한 냄새가 나게 해 남편들에게 버림받게 했다. 그 후 여자들이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섬은 여성들만의 세계가 되었다. 테세우스의 아들 히폴리토스가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고 아프로디테는 혐오했다. 모욕을 느낀 여신은 그 벌로 테세우스의 두 번째 아내 파이드라가 히폴리토스를 사랑하게 만들었다. 그에게서 사랑을 거절당해 모욕을 느낀 파이드라는 남편에게 아들이 자신에게 고백했다며 거짓으로 말했다. 분노한 테세우스는 포세이돈에게 부탁해 히폴리토스가 전차로 바닷가를 지날 때 포세이돈이 보낸 괴물이 바다에서 나왔고, 말이 놀라는 바람에 그는 바다에 떨어져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은 파이드라는 죄책감에 자살하고 말았다. 반대로

자신이 만든 조각품을 사랑하게 된 피그말리온을 위해 조각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기도 했다.

* 에로스와 프쉬케(Psyche)

프쉬케는 ‘영혼’을 뜻한다. 프쉬케 공주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녀가 아프로디테보다 더 아름답다는 소문이 돌아 사람들은 미의 여신에 대한 숭배를 중단할 정도였다. 질투가 난 여신은 아들인 에로스에게 프쉬케가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하도록 시켰다. 어머니의 복수를 하러 간 에로스는 도리어 자신의 화살에 찔리고 말았다. 에로스의 사랑을 받아 그와 결혼했으나 프쉬케는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두 언니는 남편이 괴물일지도 모른다면 밤에 불을 밝히고 남편의 모습을 확인해 보라고 했다. 불을 밝히고 보니 남편은 사랑의 신이었다. 등의 기름이 어깨에 떨어져 잠에서 깨어난 에로스는 프쉬케의 불신을 힐책하면서 떠나갔다.

아들의 배신을 알자 아프로디테는 분노하여 프쉬케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녀가 절망에 빠질 때마다 개미, 독수리 등이 나타나 도와준다. 끝으로 여신은 지하 세계로 내려가 페르세포네의 화장수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프쉬케는 여러 장애를 극복하고 명계로 가서 페르세포네에게 화장수를 얻었다. 그것은 절대로 열어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오던 중 병을 열었고, 그 병에서 나온 나쁜 기운으로 인해 깊은 잠에 빠졌다. 에로스는 그때까지 지켜보다가 잠든 그녀를 깨워 함께 제우스에게로 가서 결혼하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제우스가 아프로디테를 설득해 그들은 결혼했고 프쉬케는 신이 되었다.

6. 아테나(Athena)

완전 무장한 채로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난 아테나는 전쟁과 지혜, 공예의 여신으로 여겨진다. 아테나는 전차를 비롯한 수많은 무기를 발명한 여신이며 또한 여성의 일인 방직, 도기와 금세공, 수공업같은 여러 기술의 여신이기도 하다. 아테나 여신은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 제도를 마련해 주었다. 아레스가 딸을 겁탈하려던 포세이돈의 아들을 죽여서 아레스와 포세이돈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아테나는 ‘아레이오스 파고스’, 즉 아레스의 언덕에서 세계 최초로 재판관을 주관했다. 이 재판에서 아레스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재판은 매우 공정하다고 알려져 그 후 신과 인간들은 분쟁을 이 아레이오스 파고스 법정에서 재판받기를 원했다. 이렇게 여신은 문명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했다.

1) 전쟁과 영웅들의 여신

아테나는 제우스가 기간테스들과 싸울 때 혁혁한 전과를 세웠다. 그때 아테나는 기간테스 중 하나의 살가죽을 벗겨 자신의 방패에 씌웠고, 후에 메두사의 머리까지 달아 무적의 방패를 만들었다. ‘아이기스’라는 이 방패는 원래 제우스의 것이었으나 그가 아테나에게 물려주었다. 아테나의 신분과 역할을 나타내는 표장은 창과 투구와 아이기스이다. 고대 그리스 인들은 탁월한 지혜를 발휘해 눈부신 문명을 일구었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렸다. 그들은 지혜의 산물인 문명이 전쟁의 참화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두 직분을 함께 그녀에게 부과한 듯하다. 여신은 전쟁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고 이성을 실천한

다. 따라서 정의로운 영웅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도와주는 영웅들의 수호신이기도 하다.

2) 도시의 수호신

아테네 시를 두고 포세이돈과 겨룰 때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를 선물로 내걸어 승리해 아테네의 수호신이 되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인들은 처녀신 아테나에게 ‘파르테논’ 신전을 지어 바쳤다. 그녀는 아테네뿐만 아니라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수호신이기도 하다. 아테나는 우연한 사고로 죽게 한 친구 팔라스(Pallas)를 기려 입상을 만들어 ‘팔라디온’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 입상은 올림포스에 있다가 트로이가 창건될 때 그곳으로 가서 아테나 신전에 자리 잡았다. 그 후 송배의 대상이 되어 이 상이 있는 한 트로이는 적에게 함락되지 않으리라 믿게 되었다.

3)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어머니 메티스로부터 지혜를 물려받아 공예와 창조적 과학의 여신이기도 해 자수와 직물과 공예를 관장한다. 자수와 직조에 뛰어난 기술을 가진 아라크네가 오만을 품고 아테나와 솜씨를 겨룬 끝에 여신의 벌을 받아 거미로 변해 평생 줄을 짜며 살게 되었다.

7. 아르테미스(Artemis)

제우스와 레토의 딸로 달빛과 사냥의 여신이며, 아폴론과는 쌍둥이 남매이다. 아르테미스는 대부분 숲이나 산, 들판에서 사냥하며 지낸다. 그래서 항상 활과 화살통을 지니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녀의 화살은 산욕을 치르는 여자를 고통 없이 그 자리에서 죽게 하는 힘을 지녔다고 한다.

아르테미스는 선주신앙에서 대지, 특히 야수들이 사는 들판을 주관하는 모신으로서 동식물의 다산과 번성을 주관하고, 출산과 어린이의 발육을 수호하는 신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서의 그녀는 야생의 들짐승의 수호신이다. 특히 어린 짐승들의 번식과 성장, 식물의 번식과 성장을 주관한다. 그녀는 해산을 주관하는 직분에서 풍요의 여신으로 어린 짐승의 출생과 성장, 식물의 번식, 성장을 돌보는 신격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난산을 하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여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아르테미스에게 두려움을 느꼈고, 달빛만 비치는 밤 혹은 캄캄한 밤에 숲이나 들판을 지날 때 아르테미스는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 인들은 고통 없이 급작스럽게 죽은 자들은 어딘가에서 여신이 쏜 화살에 맞은 것이라고 믿었다. 여신의 잔혹함은 밤의 어둠과 숲이나 들판에 대한 인간의 공포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1) 순결의 수호 여신

아폴론보다 조금 먼저 태어나 바로 어머니의 해산을 도왔다. 여신은 평생 순결을 지키며 오염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사냥을 하며 살았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여사제나 요정들이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가차 없이 징벌했다. 요정 칼리스트가 제우스의 자식을 임신했을 때 화를 참지 못한 여신이 활을 쏘아 죽이려 했다. 놀란 제우스는 칼리스트를 곱으로 변하게 한 뒤 하늘로 끌어올려 ‘곰’ 별자리가 되게 했다. 사냥꾼 오리온과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자신을 욕보이려 하자 아르테미스는 전갈을 시켜 오리온의 발뒤꿈치를 물어 죽게 했

다. 죽은 오리온은 하늘에서 ‘오리온자리’가 되었고, 전갈은 ‘전갈자리’가 되었다. 또 숲 속에서 목욕하는 자신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악타이온을 사슴으로 변신시킨 다음, 그의 사냥개 50마리에게 잡아먹히게 했다. 아르테미스의 순결 보호와 징벌은 결혼 전에만 해당되고 결혼 후에는 여인의 분만을 도와준다.

2) 들짐승의 수호 여신

여신은 순결한 야생의 장소인 산과 숲,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활을 쏘고 사냥을 즐긴다. 휴식을 취할 때는 요정들과 강물에서 목욕을 즐긴다. 아르테미스는 문명화된 도시의 신이 아니라, 야생의 장소를 무대로 한다. 그녀는 들짐승을 수호하고 그 번식을 주관하며, 다른 한편으로 사냥을 매우 즐기는 모순점을 갖고 있다. 달빛의 여신인 만큼 고대인들은 들짐승의 생식과 성장에 달의 주기가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3) 출생과 성장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출생 시 어머니의 분만을 도운 이후로 분만을 돕고 어린아이를 돌보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출산하는 여인들은 여신에게 순산을 기원했고, 난산일 경우 여신에 의해 생사가 좌우된다고 여겨졌다. 아기를 낳다가 죽은 여인들은 아르테미스의 화살을 맞은 것으로 믿었다.

아르테미스도 자신에게 불경한 행동을 한 인간을 용서하지 않았다. 탄탈로스의 딸 니오베는 아들과 딸이 각각 일곱 명씩 있었다. 아르테미스 축제에서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여신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못 마땅히 여겨 자신은 아이를 열네 명이나 낳았지만 레토는 둘밖에 없으니 자신이 더 낫다고 자랑했다. 그녀의 딸 일곱은 아르테미스의 화살에 맞아 죽었고, 아들 일곱은 아폴론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 슬픔을 못 이긴 니오베는 결국 바위가 되고 말았다. 또한 아가멤논 왕은 활을 잘 쏘았는데 아르테미스 여신도 자신만큼 잘 쏘지 못하리라고 자랑했다. 화가 난 여신은 바람을 거두어 트로이 원정을 떠나는 그리스 함대를 묶어 놓았다. 그리스군 총사령관 아가멤논은 출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지 않을 수 없었다. 순결의 수호 여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순결한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했기 때문이다. 희생제의 도중 딸을 불쌍하게 여긴 아르테미스가 그녀를 데려가 흑해 연안에 있는 자신의 신전의 여사제로 삼았다. 제사가 끝나자 바람이 불어 원정대가 출발할 수 있었다.

*

*

*

최초의 신화에서 여신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했었지만 점점 축소되었다. 세상은 가이아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 창조되었고, 대부분의 신들도 탄생하였다. 하지만 신화 속 여성은 가정을 지키고(헤라), 질투(헤라)나 호기심(판도라)으로 불화를 일으키고, 또 순결(아테나)해야 하는 인물, 혹은 사랑에 모든 것을 거는 인물(아프로디테)로 그려진다. 여신들은 대부분 순종적으로 그려지는데 이것은 남성 지배 이데올로기에 따른 결과이다. 신화의 여성들이 운명에 저항하지 않고 아름답고 매우 순종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 역시 같은 이유이다. 그리스 신화의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의 가치와 미덕에 부합되고 사회적으로 교훈을 주는 경우야 비로소 칭찬과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 여신들의 이야기는 여성을 악의 근원(판도라)으로 폄하하면서도 처녀성(아테나)을 숭상하는 이율배반적인 남성 이데올로기를 보여주고 있다.

8. 아폴론(Apollon)

아폴론은 그리스계 이름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아시아나 북방민족으로부터 이입된 목자의 수호신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리스의 대표적 신이 되어 특히 죄를 벌하고 그 더러움을 씻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아폴론은 음악과 시의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주관하는 신이다. 또한 예언의 신이기도 해 델포이에 신전을 두고 무녀를 통해 신탁을 내렸다. 거짓과 어둠이 없는, 진실과 밝은 면의 신이자 델포이 신전의 신탁을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리스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신이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혈족간의 불화나 복수는 반드시 신탁에 따라야 하며, 범죄는 반드시 속죄해야 한다고 인식되었던 만큼 아폴론의 영향력은 컸다. 아폴론은 올림픽 우승자에게 수여하는 월계관의 주인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신이다.

1) 예언의 신

아폴론이 델포이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세계의 질서와 이치를 상징하는 티탄 테미스의 오래된 신탁을 산속에서 지키는 뿔뿔이라는 용을 활로 죽여야 했다. 이 용은 그 지역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었다. 아폴론은 그 용을 죽이고 테미스의 비밀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아폴론의 예언은 여기서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델포이는 '우주의 배꼽(Omphalos)'으로 자처했다.

2) 활의 신

아폴론의 은 화살은 모든 악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때문에 정의롭고 착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한 고통 없이 죽게 했다.

3) 치료와 정화의 신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는 아폴론의 아들이다. 아들에게 그 역할을 물려주기 까지는 아폴론이 치료와 정화를 맡았다. 그의 불은 순수했기 때문에 신체에 좋은 영향을 미쳤고, 더럽혀진 영혼을 정화하는 힘이 뛰어났다. 사람을 죽인 자를 속죄시키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4) 시와 음악의 신

아폴론은 시와 음악이 만들어내는 주술의 힘으로 영혼을 사로잡았다. 햇빛의 신 아폴론은 햇빛이 도취시키는 영혼의 고양 상태를 시와 음악으로 표현한다. 그는 아홉 명의 무사이를 지휘했고 그 가운데 막내 칼리오페를 사랑하여 그 사이에서 오르페우스를 낳았다. 오르페우스는 아폴론으로부터 음악과 시의 재능을 물려받았다.

5) 사랑과 시련과 징벌

아폴론은 사랑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는 강의 신의 딸 요정 다프네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응하지 않고 달아났다. 아폴론이 계속 쫓아오자 다프네는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고, 강의 신은 딸을 월계수로 변하게 했다. 그로부터 아폴론은 월계수를 자신의 나무로 삼아 운동 경기의 우승자에게 떡갈나무 관 대신 월계수관을 씌워주게 되었다.

코로니스는 아폴론의 아들 아스클레피오스를 임신했지만 인간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다가 발각되어 아폴론의 화살을 맞고 죽었다. 아폴론은 화장을 치르기 직전 코로니스에게서 아이

를 꺼냈다.

그는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의 딸 카산드라의 사랑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 주겠다고 했다. 카산드라가 예언력을 달라고 해서 가르쳐주었으나 그녀는 배우고 나서, 아폴론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가 난 신은 그녀에게서 설득력을 앗아버려 그녀가 예언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다.

아름다운 소년 휘아킨토스는 아폴론의 사랑을 받아 함께 원반던지기를 하며 놀다가 아폴론이 던진 원반에 맞아 죽었다. 그의 피에서 히아신스 꽃이 피어났다.

아폴론은 사랑의 시련 외에도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헤라, 포세이돈, 아테나와 함께 제우스를 쇠사슬로 묶어 하늘에 매달려던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 그 별로 포세이돈과 함께 트로이의 왕 라오메돈을 위해 성벽을 쌓아야 했다. 일이 끝나 그가 품삯을 요구했을 때 왕은 두 귀를 자르고 노예로 팔겠다고 위협했다. 아폴론은 역병을 퍼뜨려 복수했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자 제우스가 운명을 거슬렀다는 죄로 벼락을 내리쳐 죽게 했다. 아폴론은 제우스에게 벼락을 만들어준 퀴클롭스 형제들을 활을 쏘아 죽였다. 그 별로 그는 아드메토스 왕의 소 떼를 보살피야 했다. 아폴론이 소 떼를 잘 보살피 소들이 늘어나 아드메토스 왕은 부유해졌다.

아폴론은 그리스 전역에서 예언과 활, 그리고 시와 음악과 의술로 숭배 받았다. 그는 제우스가 이끄는 올림포스의 가부장적 절대 권력의 수호자였기 때문에 인간의 오만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9. 헤르메스(Hermes)

헤르메스는 제우스와 아틀라스의 딸 마이아(동굴의 요정) 사이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폴론의 소를 훔쳤는데 이때 뒤를 밟히지 않기 위해 소의 꼬리를 끌고 뒷걸음질 치게 할 정도로 지혜를 발휘했다. 이 에피소드에서 그의 두 가지 특징인 술책과 이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거북을 잡아 그 껍질에 소의 창자로 현을 매어 리라를 만들었다. 악기의 음색에 반한 아폴론은 리라를 얻는 대신 목동들의 수호를 헤르메스에게 양보했고, 자신의 소 떼 훔친 것도 용서했다. 헤르메스는 피리도 만들어 아폴론에게 주었다. 피 많은 술책은 그를 상업의 신으로 만들었고, 발 빠른 이동성은 제우스의 전령으로 활약하게 했다. 또한 죽은 자를 저승으로 안내하는 역할도 맡았다. 힘의 범위가 확대되어 나그네의 수호신, 상업, 도둑의 신도 맡았다. 헤르메스를 위한 신전은 없고 그의 상은 주로 교차로나 시장의 입구에 서 있다. 그는 또한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이다. 인생에게 우연히 얻은 행운이나 길에서 주운 물건은 모두 그의 선물이다.

헤르메스의 공적은 대부분 제우스나 아폴론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전령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모험을 하거나 누구를 도울 수 없었다. 그러므로 신화에서 그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1) 제우스의 전령 신

헤르메스는 날개가 달린 신발을 신고, 손에는 전령의 징표인 황금 지팡이를 들고 다녔다. 이 지팡이는 신과 인간을 잠들게 하거나 잠에서 깨우는 힘을 가지고 있다. 헤라의 질투

때문에 암소로 변한 이오를 잠들지 못하게 해 고통을 주던 괴물 아르고스를 죽인 것은 헤르메스였다. 이 괴물은 눈이 백 개나 되어 모든 눈이 한꺼번에 잠드는 일이 없어 헤르메스는 황금 지팡이로 괴물의 눈을 모두 잠들게 한 뒤에 죽였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의도를 잘 알아 영웅들이 곤경에 처하는 순간, 나타나 제우스의 도움을 전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2) 여행자와 상인의 신

헤르메스는 빠른 이동 능력을 이용해 여행자를 돕고 소 떼나 양 떼를 몰고 이동하는 목동들을 보호한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사거리에서 그의 모습이 새겨진 기둥을 세워놓기도 했다. 그는 재주꾼인 데다 술수에 능하고 언변이 뛰어나 상대방을 설득하여 물건을 맞바꾸거나 남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하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상인의 신이며, 도둑의 신이기도 하다. 비양심적인 술책에 의해 이익을 취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행운과 뜻밖의 발상을 가져다준다는 데서 유익하고 자비로운 신이다.

10. 아레스(Ares)

아레스는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로 피와 살육을 즐기는 전쟁의 신이다. 그는 아테나와 달리 목적이나 명분 없이 야만적인 싸움을 즐기는 난폭한 신이다. 전술이나 책략과 같은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억제하지 못해 무작정 폭력을 휘두르고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와 인도주의를 신봉하는 그리스인들은 아레스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갑옷에 투구를 쓰고 방패와 창검으로 무장하고 다녔는데 불안의 신 데이모스, 공포의 신 포보스, 불화의 여신 에리스, 싸움의 여신 에닉오와 항상 같이 다녔다.

테바이를 세운 카드모스가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하르모니아와 결혼함으로써 테바이의 시조가 되었다.

야만스러운 시대의 신들은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올림포스 신앙에 의해 점차 정복되어 갔다. 올림포스의 신들은 종종 인간의 전쟁에 개입해 비호하거나 방해했는데 이는 자신들을 숭배하는 인간이나 영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아레스를 수호신으로 숭배하는 도시가 거의 없어 전쟁이 일어나면 그는 내키는 대로 공격했다. 아레스는 폭력을 좋아하고 광포했지만 악의 신은 아니었다. 로마시대에서 호전적인 성격의 로마인들은 아레스를 숭배하고 도시의 보호신, 군주의 선조신으로 숭배하게 되었다. 검사(劊士)의 신이며 남성답고 호전적인 활동에 관여하는 신으로 로마인은 원정에 나설 때 마르스(라틴명) 신전을 찾아 제사를 올렸다.

11. 헤파이스토스(Hephaistos)

헤파이스토스는 불을 쓰며 일하는 대장장이 신으로 각종 금속 제품을 만드는 장인이다. 그는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났다고도 하고, 헤라 혼자 낳았다고도 한다. 장애가 있는 것도 제우스, 혹은 헤라가 집어던졌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바다에 떨어진 헤파이스토스를 테티스가 구해 9년 동안 길러주었다. 트로이 전쟁 때 테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를 위해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 준 것은 그 답례라고 한다. 올림포스로 돌아온 그는 신들의 궁전을 만들었다. 그는 대장장이이고 장인이자 발명가였다. 그의 발명품은 꿈과 마법의 작품이었다.

그는 테티스의 요청에 따라 아킬레우스의 무기를 만든 것부터 자동 기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술과 발명의 위력을 곳곳에서 과시했다.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 진흙을 빚어 판도라를 만든 것도 그다.

12. 디오니소스(Dionysos)

제우스와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난 포도주의 신이다. 헤라는 세멜레를 속여 제우스가 헤라에게 접근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해달라는 청을 하도록 했다.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기로 약속한 바 있는 제우스는 세멜레의 요청에 따라 번개를 갖고 나타났고, 세멜레는 그 자리에서 타 죽었다. 제우스는 그녀의 태내에 있던 디오니소스를 자신의 허벅지에 넣어 달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태어나게 했다. 디오니소스는 헤라의 눈을 피해 산 속에서 성장했고, 산에서 포도의 성질을 알고 포도즙을 인간에게 나누어주며 그 유익함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디오니소스 신앙은 트라키아 지방에서 그리스로 이입된 듯한데, 그는 대지의 풍요를 주관하는 신인 한편, 포도주의 신이다. 이 술의 신에 대한 의식은 광적인 상태를 수반하는 것으로 특히 여성들이 햇불과 지팡이를 흔들면서 난무하고, 야수를 죽이는 등 광란의 의식으로 숭배되었다.

1) 유랑과 통음난무와 영광

성인이 된 디오니소스는 포도로 포도주를 만드는 법을 터득해 요정들과 함께 즐겼다. 그러나 헤라가 그에게 광기를 불어 넣어 미친 그는 이집트와 시리아를 떠돌아다녔다. 그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무리는 가는 곳마다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무아지경에 빠져들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서 그의 숭배 열기는 대단했다. 그들은 황소를 들판에 풀어놓은 뒤, 들판을 가로지르며 황소를 쫓아다니다가 황소를 잡아 죽여 그 피를 마시고, 그 고기를 익히지 않고 먹었다.

술과 노래와 춤에 취해 현실의 각종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디오니소스의 위력은 대단해 그는 자신의 신격화를 앞두고 세멜레를 찾으러 지하 세계로 내려갔다. 자신의 영광에 어머니를 동참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어머니를 찾은 그는 불멸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 올림포스로 올라가 신의 반열에 자리하게 된다. 그는 낙소스 섬에 홀로 남은 아리아드네와 결혼한다.

2) 디오니소스 숭배

디오니소스 신앙의 핵심은 술과 축제이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광란의 춤을 추며 무아지경에 빠져 일상생활의 모든 걱정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과 자유를 구가하였다. 이는 모든 지난 일을 함몰시키는 혼수상태이기도 하다. 축제가 벌어지면 여신도들은 가면을 쓰고 억눌린 본능을 마음껏 풀었다. 초기에는 신자들이 대부분 여자들이었으나 점차 남자들도 가담했다.

3) 연극의 신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재미있고 외설스러운 ‘코모스’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것이 ‘코메디(comédie)’로 발전했고, 신에게 희생양을 제물로 바치며 부르는 ‘트라고스’라는 노래는 ‘비

극(tragédie)’로 발전했다. 그 무리 중 반인반수인 사티로스 주위에서 부르는 노래에서 발현한 것이 풍자극이다. 디오니소스가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연극의 신으로 추앙받는 것은 이때문이다.

4) 통음난무의 디오니소스와 오르페우스 신앙의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 신앙에서 술과 춤은 양면성을 가진다. 그것을 통해 자유와 기쁨을 구가해 일상적 삶의 활력을 배가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것이 주는 자유와 기쁨에 탐닉해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더 나아가 건전한 일상생활을 혐오하고 기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신앙과 축제가 고대 사회에서 활력소 역할을 하며 민중 속으로 파고들면서, 가부장적인 제우스가 이끄는 올림포스 신들에 대한 숭배와 절대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 체제의 억압 요인을 상당 부분 완화시키는 데 공헌을 한 것 또한 사실이다. 디오니소스의 통음난무가 가져다주는 해방감은 삶의 저속함과 동물성을 통해서 신적인 것을 만나고 그로부터 활력을 찾거나 소생하는 것이지만, 신적인 것을 중시한 나머지 평범한 일상의 규칙과 관행을 혐오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유익하지 못했다.

이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술과 춤의 디오니소스 신앙을 외면하고 욕망을 절제하는 금욕적인 일상생활을 선택하여 분출보다는 금욕을 선택함으로써 술과 춤이라는 도피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찾은 신앙이 기원전 6세기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모든 살생을 금하고 육식을 삼가는 것을 기본 규칙으로 삼는 오르페우스 신앙의 삶의 양식이다.

인간에게는 신성이 내재되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금욕을 실천하는 자기 정화의 삶을 통해서만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오르페우스 신앙에서 말하는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페르세포네 사이에서 태어난 ‘다른’ 디오니소스이다. 제우스가 어린 그에게 지배권을 넘겨주려고 하자 헤라의 사주를 받은 티탄들이 디오니소스를 죽여 삶거나 구워 먹었다. 격분한 제우스가 벼락을 쳐서 티탄들을 재로 만들었고, 이 재에서 태어난 것이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티탄의 악한 성격과 티탄이 먹은 디오니소스의 신성이 함께 들어 있다고 믿는 것이 오르페우스 신앙이다. 신과 인간은 다르다고 하는 기존의 신앙체계와 다르고,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티탄의 악한 본성이 깃든 인간들은 매일의 금욕과 자기 정화를 통해 악한 면을 털어내고 신성만 간직한 채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희망을 심어준 오르페우스 신앙은, 가부장적인 올림포스 신앙의 틀을 뒤흔들어 놓았다.

* 디오니소스 축제

겨울이 되면 낮이 짧아지면서 어둡고 무서운 밤이 점점 더 길어진다. 살아있는 것들이 자취를 감추고 땅 위에는 죽음이 지배하는 듯하다. 세상을 죽음으로부터 살리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 생명을 주관하는 대지의 신에게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않도록 빌어야 한다. 죽음의 대지에서부터 생명을 소생시켜야 하는 것이다. 죽음의 시간인 밤에 여신도들이 신의 땅인 산으로 가서 춤으로써 신에게 빌어야 한다. 탈진해서 쓰러질 때까지 춤을 추고 신의 몸과 피를 받아먹음으로써 죽어가는 생명을 소생시켜야 한다. 죽음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축제는 겨울밤, 산에서 치러졌다.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종교적 체험에서 극치이다.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여신도들이 맛본

것은 바로 이 죽음이다. 이들은 미친 듯 춤을 추다 탈진 상태에 이르는 것인데 탈진은 죽음이다. 그러나 죽음은 새로운 삶이다. 죽음으로써 우리는 개체의 한계를 벗어나고 다른 것들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상에서 맞볼 수 없는 것이다. 죽음에 이르기 위한 광기야말로 디오니소스 축제의 특징이다. 그래서 생명의 신인 디오니소스는 동시에 죽음의 신이기도 하다.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여신도들은 가면을 썼다. 가면을 쓰는 순간 자신이 사라진다. 가면 뒤에 숨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 모든 금기가 사라지는 것이다. 평소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이 가면을 쓰면 가능하다. 이 가면에서 고대 그리스 비극이 탄생했다. 비극은 거울에 있는 디오니소스의 축제에서 시작된 것이다.

디오니소스 숭배는 민간에 뿌리를 둔 신앙이어서 귀족 취향의 호메로스를 비롯한 서사시인들은 크게 호감을 갖지 않았다. 이 신앙이 갖고 있는 광기는 이성과 합리적 사고를 중시하는 서사시인들, 철학자들에게는 위험하게까지 느껴졌다. 그래서 호메로스는 디오니소스를 올림포스 12 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한 세대 뒤의 헤시오도스는 올림포스 신으로 기록하였다.

귀족들과 지식인들과는 달리 민중은 디오니소스를 사랑했다. 이들에게 술과 축제로 대변되는 디오니소스는 일상의 근심과 걱정, 노동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고마운 신이었다. 디오니소스 신앙은 그들에게 지겨운 일상에서 해방감을 맞볼 수 있는 탈출구였다. 특히 가부장제도 속에서 억압받는 여자들에게 술과 광적인 춤으로 이루어진 디오니소스 축제는 집안일에서 벗어나 스트레스와 불만을 풀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였다. 따라서 초기 디오니소스 신앙의 신도들은 대부분 여자들이었다.

*

*

*

올림포스의 신들은 서로 대립하면서 보완하는 관계를 맺는다. 헤파이스토스는 프로메테우스를 묶은 쇠사슬을 만들었지만, 불을 사용하는 장인으로서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와 가까운 관계이다. 아테나는 목공예와 직물을 주관하는 공예의 여신으로 헤파이스토스와 함께 ‘기술’을 관장하는 한 쌍의 신으로 통한다. 또한 아레스가 야만적인 전쟁을 주도하는 무신이라면, 아테나는 도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쟁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아테나와 아레스는 전쟁을 주관하는 한 쌍이 된다. 결혼 생활을 주관하는 헤라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함께 이율배반적인 쌍을 이룬다.

헤스티아는 가정의 중심인 화로처럼 움직이지 않는 반면, 헤르메스는 움직임과 여행의 신이다. 산과 숲처럼 문명화되지 않아 사냥하기에 좋은 곳을 관장하는 아르테미스는 경작지를 관할하는 데메테르와 대립된다. 특히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는 한 쌍의 대립적 신으로 아폴론이 질서와 안정을 좋아하고 불경하고 기이한 것을 싫어해 항상 진실을 말하는 반면, 디오니소스는 기존의 모든 것을 문제 삼고 그 질서를 흐려 놓는다. 디오니소스는 젊으면서도 늙었고, 야생이면서도 문명화된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접근하기 힘든 ‘다른 곳’을 지향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나 적들을 다 같이 그곳으로 인도한다.

올림포스 신들은 불멸의 존재이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다. 신들 역시 인간처럼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알 수 없는 운명으로 인해 불안해하며 기쁜 일에는 즐거워한다. 각자 자신의 직분에서 벗어나는 일은 할 수 없다. 신들은 인간보다 뛰어나고 행복한 삶을 영원히 보장받은 존재이지만 인간과 다름없이 운명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도 하다.

올림포스 신들은 흠 잡을 데 없이 훌륭한 성품을 지니고 있지도 않고, 언제나 객관적인 태도로 상황을 판단하고 공정하게 행동하지도 않는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그러한 신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신들은 또한 인간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하고 종결짓고 새롭게 시작한다. 인간을 대신하여 판결을 내리고 상을 주고 벌을 내린다. 그리스인들은 그런 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 했을 것이다.

13. 포세이돈(Poseidon)

바다와 물의 신이며 지진을 관장하는 신이다. 삼지창 ‘트리아이나’가 표장으로 그는 티타노마키아 때, 퀴클롭스 3형제가 만들어준 이 삼지창으로 태풍과 해일을 일으킨다. 바다에 면해 있는 도시국가나 에게 해의 많은 섬에서 포세이돈의 위치는 막중했다. 그는 항해, 바다의 음모와 해적행위를 견제하는 신으로 존중받았다.

포세이돈은 거칠고 변덕스럽고 위험한 바다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신이다. 다혈질이고 성급하고 파괴적이며 감정에 치우치는 편으로 힘은 세지만 사려가 깊지도 술수에 능하지도 못하다. 이런 점에서 그는 제우스에 못 미쳤다. 제우스와의 관계는 대체로 우호적이었으나 다른 신들과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간들이 도시를 건설하면 수호신을 선택하게 되는데, 때로 한 도시의 수호신으로 여러 신들이 나서는 경우가 생기고 신들 상호간에 갈등이 일어나 동료 신이나 인간들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는 거의 언제나 패배했다. 코린토스에서 아폴론과 갈등을 일으켰으나 패했고, 텔포이 역시 아폴론에게 빼앗겼고, 아테네 시는 아테나에게 패했다. 다혈질이고 잘 흥분하는 그가 다른 신들과 자주 다투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다.

1) 바다와 물의 신

포세이돈은 거칠고 사납고 변화무쌍한 바다를 관장하는 신일뿐 아니라 지상의 모든 물의 솟아남과 흐름을 주관하여 샘과 호수 역시 지배했다(강은 자체의 신들이 있다.). 그는 삼지창으로 바위를 찢어 샘물이 솟아나게 할 수 있고, 강물을 불어나게 해 홍수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가뭄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가 수호신이 되기를 원했던 아테네 시를 아테나 여신에게 빼앗겼을 때는 화가 나서 아티카 지방에 홍수를 일으켰고, 헤라에게 아르고스를 빼앗겼을 때는 가뭄이 들게 했다.

그는 파도 위에서 이동할 때 상반신은 말, 하반신은 뱀인 동물들이 끄는 마차를 타고, 물고기와 돌고래와 네레우스의 아름다운 딸들과 반인반어인 트리톤들과 물개 떼를 몰고 다니는 프로테우스의 호위를 받았다.

2) 포세이돈과 말, 소

포세이돈은 데메테르에게 접근할 때, 말로 둔갑해 그 사이에서 명마 아리온을 낳았고, 메두사와 결합할 때도 말로 변신해서 날개 달린 명마 페가소스를 낳았다. 파도가 거칠게 치는 모습이 말이 힘차게 달리는 모습 같다고 해서 포세이돈의 제사에 경마나 전차 경주가 빠지지 않았다.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크레타 섬에서는 포세이돈에 대한 숭배가 중요했고, 그래서 크레타 섬은 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옛 사람들은 지진이 소가 땅 밑에서 코에 불을 뿜으며 달려서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3) 포세이돈의 분노: 안드로메다와 오디세우스

에티오피아의 왕비 카시오페이가 포세이돈의 부인보다 더 아름답다고 자랑하다가 포세이돈의 노여움을 샀다. 신은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주 안드로메다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했다. 공주가 바다괴물에 희생되려는 순간, 영웅 페르세우스에게 구출되었다. 또한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귀향하던 오디세우스는 포세이돈의 한 아들을 다치게 했다. 포세이돈이 화가 나 귀향하는 그를 끈질기게 괴롭히며 방해했다.

4) 포세이돈의 후손들

포세이돈에게는 아들이 많다. 자식이 많은 것은 포세이돈이 그리스 전역에 걸쳐 널리 숭배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가 갖고 있는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의 자식들 중에는 성질이 포악하고 못된 악당들이 많다. 이는 포세이돈이 자연의 무서운 힘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거칠고 변덕스러운 바다, 포효하는 강물이나 사나운 폭풍우, 해일은 자연의 파괴적이고 남성적인 힘을 나타낸다. 이런 현상을 주관하는 신의 아들들이 온순할 리 없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다. 따라서 물을 다루는 신 포세이돈은 파괴력과 생명력을 동시에 상징한다.

14. 하데스(Hades)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신으로 ‘보이지 않는 자’를 뜻한다. 그것은 그가 ‘황금 투구(퀴네에)’를 쓰고 몰래 다가와 인간들을 자신이 다스리는 죽음의 세계로 데려가기 때문이다. 하데스는 그가 사는 지하 세계처럼 어둡고 음울하다. 신들도 그의 세계를 두려워해 헤르메스만 드나들었을 뿐이다. 그는 사교적이지 않아 올림포스에서 다른 신들과 어울리는 일도 거의 없고, 올림포스의 여러 신들이 참가한 트로이 전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포세이돈이 지진을 일으켜 자신의 지하 궁전이 세상에 드러날까 걱정했다. 그는 저승의 법을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는, 냉혹하고 무정한 신이기는 하지만 결코 사악하지는 않다. 인간에게 하데스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에 대한 신앙은 인간이 죽음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면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하데스는 지상으로 두 번 나왔는데 한 번은 데메테르 여신의 딸 코레를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 다른 한 번은 포세이돈의 쌍둥이 아들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이때 하데스는 헤라클레스의 화살에 맞아 어깨에 부상을 입어 올림포스로 가서 치료받았다.

* 하데스의 지하세계

그리스 신화에서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것은 아케론, 스텝스, 레테 등 5개의 강들이다. 레테 강은 죽은 자의 영혼으로 하여금 전생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망각의 강이다. 가장 먼저 있는 아케론에서 뱀사공 카론이 죽은 자들의 넋을 지하 세계로 인도한다. 지하세계의 입구는 머리가 셋이고 뱀의 꼬리를 가진 개 케르베로스가 지키고 있다. 케르베로스는 영혼을 들여보내기는 하되 아무도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지만, 그럼에도 지하세계에를 다녀온 인물들이 있다. 오르페우스, 디오니소스,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아이네이아스, 프쉬케, 시쉬포스이다. 신들은 스텝스 강을 걸고 맹세를 하면 어떤 경우에도 어길 수 없었다. 제우스도 이를 어기지 못한다. 또한 사람이 이 강물에 닿으면 초자연적 힘을 부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 여신은 갓난 아들을 이 강물에 잠기게 했다.

* 저승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는 영혼들

다나오스의 딸들: 이집트의 쌍둥이 왕자 아이킵토스와 다나오스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형이 왕위에 올랐을 때, 동생 다나오스를 바다 건너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쫓아냈다. 후에 형은 아들만 50명을 두었고, 동생은 딸만 50명을 두었는데 형의 아들들이 사촌들과 결혼하겠다고 다나오스에게 청혼하였다. 다나오스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결혼식 전날 딸들에게 아버지의 복수를 부탁하였고, 딸들은 결혼 첫날 밤 신랑을 모두 죽였다. 그러나 막내딸만은 그

리지 않았다. 다나오스와 49명의 딸들은 막내에게 왕실에서 쓰는 물을 혼자서 길어오게 하는 벌을 주었다. 딸들은 죽어서 지하세계에 내려갔을 때, 남편을 죽인 벌을 받는데, 바로 밀 빠진 물통에 물을 길어다 붓는 벌이었다.

탄탈로스: 제우스의 아들인 탄탈로스는 신들의 초대를 받아 올림포스에 자주 갔다. 그러던 그는 신들이 과연 전지전능한 존재인가? 하는 의문을 품었고, 어느 날 신들을 자신의 나라로 초대한 다음, 아들을 죽이고 그것을 삶아 내놓았다. 신들은 그걸 알고 격분해 탄탈로스를 지하세계로 보내고, 죽은 아들은 이승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탄탈로스는 저승에서 영원한 허기와 갈증에 시달리는 벌을 받고 있다.

익시온: 익시온은 제우스의 사랑을 받아 불사의 몸이 되었다. 그는 바람둥이 제우스에게 화가 난 헤라가 자신의 유혹을 받아 주리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헤라에게 접근했다. 헤라에게서 익시온의 불경을 전해들은 제우스는 공중에서 구름으로 헤라의 모습을 하고 익시온을 시험했다. 익시온이 헤라로 알고 덤벼들었다. 이를 본 제우스는 그의 사지를 불의 수레바퀴에 묶어 공중을 날게 했다. 형벌이 고통스러워 죽음만이 그를 구해줄 수 있지만 불사의 몸이라 이 형벌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었다.

시쉬포스: 코린토스를 건국한 시쉬포스는 제우스가 납치한 요정의 아버지에게 납치범의 정체를 알려주었다. 화가 난 제우스가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보냈으나 시쉬포스에 의해 나무에 묶이고 말았다. 아무도 죽지 않자 하데스가 불평하였고, 제우스는 아레스를 보내 타나토스를 구해야 했다. 시쉬포스가 죽었을 때, 제우스는 그에게 바위를 산꼭대기로 굴러 올리는 형벌을 내렸다. 그러나 바위는 정상에 올려놓으면 도로 떨어져 내렸으므로 시쉬포스는 끊임 없이 바위를 굴러야만 한다.

15. 오르페우스(Orpheus)

무사이는 제우스와 기억의 여신 므네모쉬네가 9일 밤을 함께 보낸 후 태어난 아홉 명의 딸들이다. 무사이는 각각 시, 음악, 무용 등을 담당했고, 그중 막내인 칼리오페는 서정시의 여신이다. 아폴론 혹은 강의 신 오이아그로스와 무사이의 막내인 칼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난 오르페우스는 노래와 리라 연주에 뛰어났다. 그의 노래와 연주는 어찌나 애절한지 듣는 사람은 모두 눈물을 흘렸고, 즐거운 가락이면 슬픔에 빠진 사람도 근심을 잊을 정도였다. 신과 인간은 물론 수목과 맹수마저도 그의 음악을 좋아했다.

오르페우스는 아름다운 요정 에우리뤼디케를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그가 아내를 사랑하면서 음악은 전보다 더 아름다워졌다. 그러나 결혼 직후 에우리뤼디케는 뱀에 물려 죽고 말았다. 이를 슬퍼한 그는 아내를 찾아 지하 세계로 내려갔고, 그의 음악에 감동한 하데스와 페르세포네가 그에게 아내를 데리고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다만 지상에 돌아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오르페우스는 그 약속을 어겨 아내는 그만 지하 세계로 돌아가고 말았다.

오르페우스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제우스의 벼락에 맞아 죽었다거나, 그가 너무 상심해 다른 여자들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은 탓에 여자들의 원한을 사서 죽임을 당했고 시체는 리라와 함께 강물에 던져졌다는 설 등이 있다.

* 오르페우스 신앙

오르페우스가 에우뤼디케를 찾아 지하 세계로 간 것과 그의 죽음이 오르페우스 신앙으로 발전하는 모티브가 됐다. 오르페우스 신앙에 영향을 미친 것은 언어의 주술적 힘이다. 오르페우스가 감동적인 언어로 아내를 돌려 달라고 간곡하게 탄원한 것이 하데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추종자들이 오르페우스를 자신들만의 은밀한 의식의 창시자로 받아들인 것은 바로 이 주술 때문이었다. 효율적으로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발휘된 주술은 신들까지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오르페우스가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들은 신들을 설득할 수 있는 주술을 기억하는 것이 승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오르페우스 전설의 교훈은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후 5세기까지 많은 문학작품을 낳으면서 신앙 체계가 형성되었다. 그 구원의 신앙 체계는 다음과 같다.

- 1) 그리스 전역을 지배하던 당시의 정치, 종교적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출발한다. 기원전 5~4세기의 도시국가에서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던 종교적 관행은 신들과 인간의 근원적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왕과 귀족의 혈통을 신들에게 연계시키는 것은 왕과 귀족의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그 부당함을 강조했다.
- 2) 인간의 영혼은 불멸한다고 믿었다. 인간은 제우스의 벼락을 맞은 티탄의 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악한 면이 있다. 올림포스 신들에게 적의를 품은 티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티탄은 어린 디오니소스를 찢어 죽인 다음, 먹었으므로 그 재에서 태어난 인간의 영혼에는 디오니소스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티탄의 악과 디오니소스의 신성이 모두 들어있어 그 영혼은 신성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 신앙은 영혼의 불멸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인간과 신의 구별은 없다고 보았다.
- 3) 인간의 영혼이 윤회 전생한다고 믿었다. 신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영혼이 정화되어야 한다. 티탄이 범한 죄의 흔적이 인간의 영혼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영혼에는 신성이 들어 있으므로 영혼은 죽지 않는다. 다만 원죄의 흔적을 씻고 최초의 신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과거의 죄로 인해 육체에 갇힌 영혼을 정화하고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4)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만물이 윤회 전생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윤회를 거듭하는 삶은 고통스럽다.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려면 현재의 삶을 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흰옷을 입고 육식을 금하고 단식과 금욕, 채식 등을 통해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삶을 살면서 살생을 피했다. 구원의 길과 영생은 지상에서의 일상적인 정화를 통해 얻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일상적 금욕과 정화만이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순수한 영혼의 신성을 되찾는 길이라고 믿었다.

오르페우스 신앙은 인간 영혼의 신성을 믿음으로써 헤시오도스의 천지창조 계보를 벗어나 새로운 믿음과 세계를 창조했다. 오르페우스 신앙의 주장은 고대 그리스의 전통적인 믿음 체계가 만족시켜 주지 못했던 정신적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영혼의 구원을 믿는 그들의 관심사와 오직 오르페우스만을 섬기는 유일신 숭배 등 여러 측면에서 고대 그리스의 다신교를 기독교로 이행시키는 데 공헌한 것으로 보인다.